

AI 투자 거품 우려에 코스피 흔들… 반등은 아직 ‘안갯속’

이달 들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부진 코어워브 등 부채·차입 비용 부담 증권업계, ‘W자형’ 흐름 예상

“주가가 하루하루 불안한 흐름이라 지금 들어가기 무서워요.”

“용기 내서 매수했는데 인공지능(AI) 발 신용(부채 리스크)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떡하죠?”

‘오천피’ (코스피지수 5000)로 밀려난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I발 신용 공포가 시장을 끊임없이 괴롭히자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 여부가 미국 AI 기업의 수익성·과잉 투자 우려 해소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된다는 게 전제다.

◆AI 우려에 흔들리는 코스피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1.76% 오른 5768.01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3.17% 하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에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달 들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내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코스피의 이달 수익률은 -15.65%다. 일본 니케이225는 물론 중국 심천종합지수, 인도네시아 IDX 종합지수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보다 낮다.

AI 과잉 투자와 수익성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영향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조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붐이 3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최소 47건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됐거나 철회됐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레그레이어는 이 수치는 최대 규모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적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미국에

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 약 35%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FT는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미 전역에서 1000곳 넘는 지역사회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다른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제임스 매킨토시 칼럼니스트도 이날 ‘AI 주식시장의 흔들림이 일깨운 교훈,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현재의 AI 투자 붐이 과거 대규모 설비투자 열풍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매킨토시는 1840년대 영국의 철도 투자 거품과 2000년대 전후 ‘닷컴 버블’ 당시 광섬유망 구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코어워브발 신용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코어워브,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의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이 단순한 개별 기업의 취약점인지, 데이터센터 건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번질 신호인지를 짚었다.

51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코어워브의 부채가 720억달러(약 96조1000억원)에 달하자 시장에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주 코어워브 회사채 금리는 15%를 넘어섰다. 정크 본드(투기등급 채권) 수준이다. 주가는 24% 하락했는데, 16일 하루에만 12% 급락했다.

투자은행 비클레이즈에 따르면 위험한 AI 관련 회사채의 금리 스프레드는 지난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했다. 데이터센터 위험 연구 기관 아즈라크의 알렉산드라 콜먼 설립자는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즘 이코노미스트와 은행,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매주 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채 규모를 점점 더 높게 추산하고 있다. 조사업체 AIR 플랫폼의 데이비드 먼브스 신용 전략 책임자는 “시장은 오늘 투입하고 빌려야 하는 자금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잠재적인 불

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AI에 달렸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약 22%로, 과거 미국 하이일드(고수익) 채권의 신용위험이 높아졌을 때 나타난 최대 주간 누적 하락률과 비슷해졌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보다 반등 후 다시 저점을 시험하는 ‘W자형’ 흐름을 예상했다. 과거 사례를 적용한 2차 저점 추정치는 5300선,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에 해당하는 지수는 5150선으로 제시했다. 두 수치 모두 산출 기준에 따른 참고 수준이다.

관건은 미국 AI 투자 우려가 잦아드느냐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AI 서비스 수요 자체보다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높은 금리 속에서 차입 비용을 감당하고 설비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셀 반도체’에 나선 외국인 수급도 관건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 과매도 국면에 들어섰지만,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전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NH아문디, 반도체 소부장으로 투자 확대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성과·전략 제시
설정 1주년… 수익률 84.86% 기록

NH아문디자산운용이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설정 1주년을 맞아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투자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넓힌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도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방향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고금리와 물가 불안에 따른 변동성에는 금융·에너지 업종을 함께 편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의 운용 성과와 향후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설정된 이 펀드는 AI 대전환(AX), 친환경 대전환(GX), 자본시장 대전환(CX)을 주도하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주식형 펀드다.

지난 14일 기준 설정 1년 수익률은 84.8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 /NH아문디자산운용

67.63%를 17.23%포인트 웃돌았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55.02%로 코스피보다 12.44%포인트 높았으며 순자산은 약 1300억원이다.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성과를 이끌었다. 펀드를 운용하는 최치현 주식운용2본부 차장은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의 약 80%를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업종에서 기록했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AI 관련 업종을 핵심으로 가져가되 종목 구성에는 변화를 줄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최근 2개월 연속 정체된 만큼 두 회사의 비중 일부를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옮긴다. 대형주의 이익 전망이 빠르게 상향되던 지난 1년과 달리 앞으로는 업종 내 실적 개선 폭이 큰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 투자 확대가 소부장 기업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IT하드웨어에서는 반도체 성능 향상에 따라 대형화·고대중화가 진행되는 패키징 기반 업종의 높은 비중을 유지한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는 은행·보험을, 물가 불안에는 정유·가스 업종을 편입해 변동성을 관리한다.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성장 등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차전지도 내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 글로벌 MLCC·기관 ETF 출시

AI 서버 고도화에 부품 수요 확대

“MLCC와 기관 투자 포인트는 AI 병목 현상이 MLCC와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격과 판매가 동시에 상승하는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기업 등의 수혜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19일 열린 ‘TIGER 글로벌 MLCC & 기관 ETF’ 상장 기념 웹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서버의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면서 메모리에 이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반도체 기반에서도 공급 제약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0일 글로벌 MLCC·기관 주요 기업 13종목에 투자하는 TIGER 글로벌 MLCC&기관 ETF를 상장한다. AI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품이다. 고성능 GPU와 CPU, 메모리를 다수 탑재하는 AI 서버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연산 부하에 따른 전류 변화도 커 MLCC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시한 자료에서 일반 서버의 MLCC 탑재량은 약 2200개인 반면 AI 서버는 약 2만8000개에 달한다. 차세대 AI 시스템의 전력 밀도가 높아지면서 고용량 MLCC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관 역시 AI 인프라 고도화의 핵심 부품으로 꼽혔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높아지고 데이터 이동량이 늘면서 기관은 면적이 커지고 층수가 많아지는 동시에 정밀한 배선과 방열 성능까지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쓰이는 FC-BGA 기관은 기술 난도가 높아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1193개사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전년보다 37곳 줄어

금융감독원이 2027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 대상은 1193개사로 전년보다 37개사(3.0%) 줄었다.

금감원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404개사와 직권 지정 789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정 사유가 새

로 발생한 회사는 474개사이며, 나머지 719개사는 기존 지정 사유 등에 따라 2년차 이상 연속 지정됐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상장사 88개사와 대형 비상장사 4개사 등 92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기존 주기적 지정 대상 312개사는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직권 지정은 재무기준 미달이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신규 대상은 상장 예정 222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개사, 관리종목 13개사 등을 포함한 382개사다. .

/허정윤 기자

KB증권, 베트남 미래세대 교육 지원

배움터 조성하고 장학금 전달

KB증권은 베트남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무지개교실’ 완공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지개교실’은 국내외 미래세대의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KB증권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2009년 시작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번 베트남 ‘무지개교실’을 포함해 국내 25개소,

해외 17개소 등 총 42개소를 완공했다.

KB증권은 지난 14일 베트남 하이퐁 시 락비엔(Lac Vien) 중학교에서 ‘해외무지개교실’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도서관’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실’을 조성했다. 또한 노후한 과학교실을 개보수해 창의적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환경을 마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